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12. 23(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화성산업㈜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 통큰 기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 쾌척!! 고령농업인 판로지원에 사용 전국 지자체 최초 기업과 함께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사진별첨
② **경북도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 에스엠아이 종합대상** 2019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시상… 도내 9개 우수 중소기업 시상	중소벤처 기업노동과	 사진별첨
③ **경북도, 동절기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내년 2월까지 37개 응급의료기관 한랭질환자 모니터링 한파대비 건강수칙 준수 당부	보건정책과	사진별첨
④ **사회적경제비서관과 함께 하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현장 간담회**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사업 모색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사회적경제과	사진별첨
⑤ **경북도 경주시,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역사문화도시 경주, 신라천년의 새로운 출발! 동아시아의 미래를 담다!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발표	문화산업과	
⑥ **경북도, 2019 하반기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금년 64개기업 최다 지정… 상반기 29개, 하반기 35개 지정서 수여식과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실시	사회적경제과	사진별첨
⑦ **2019년 제1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구미 지산동 지적재조사사업지 용도지역 불부합지 변경' 및 '영주 경북전문대 학교부지 일부 축소' 2건 원안가결	도시계획과	사진별첨
⑧ **경북도, 고졸청년 취업활성화 지원을 통한 고졸성공사회 구현** 경북형 고졸취업활성화 모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고졸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패키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일자리청년 정책관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 이철우 도지사, '제16전투비행단 장병' 위문 - 이철우 도지사, '2019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상' 시상 - 이철우 도지사, '2019 경북환경상' 시상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3(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정 희 석	
			팀 장	조환철	주무관 제갈승
		연 락 처	054-880-3317		

화성산업㈜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 통큰 기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 쾌척!! 고령농업인 판로지원에 사용 -
- 전국 지자체 최초 기업과 함께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사업 추진 -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자유무역협정(FTA)·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철회 등 농어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농어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23일 대구경북상생본부에서 경상북도-화성산업(주)-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민간 기업들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70억원을 조성하여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복지증진,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산업(주)은 농어업 상생기금으로 총 5억원을 출연했다.

경상북도는 화성산업(주)이 출연한 상생기금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을 돕는 '농산물 나눔 프로젝트' 추진에 전액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농산물 소비는 물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산업(주)은 지난 58년 설립이후 지역 건설 대표기업으로서 인재양성, 사회복지, 환경보전, 문화예술지원 등 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2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이 이루어지기까지 협력재단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는 후문이다. 2005년 설립된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과 농어업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동반성장의 여건 조성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기업과 지자체간에 진행하는 이번 협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협약식에 참석한 화성산업(주) 이인중 명예회장은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상생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으며, 이번 출연이 대구·경북 간 상생협력에 촉진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과 농어업·농어촌간의 상호 이익 증진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날의 산업화와 기업성장의 밑바탕에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업인의 희생이 있었다”며 “화성산업과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화성산업㈜ 업무협약

농어촌 상생 "농산물 나눔 프로젝트" 추진

❖ 농어촌 상생발전 기금을 통해 기업체의 지역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고령농업인 등의 농산물 판로애로 해소

❖ 복지시설 농산물 기부로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의 일거양득 효과

※ 「지자체-농어업협력재단-기업 3자협약」 사업 전국 최초 실시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19. 12. 23(월) 10:30 ~

❍ 장　　소 : 대구경북 상생본부 회의실(구도청, 대구 북구 연암로 40)

❍ 참석인원 : 20명 정도(도지사, 화성산업 명예회장, 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 주요내용 : 농어촌 상생기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기금내용

❍ 출연기금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5억원

❍ 관련기관 : 경상북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화성산업(주)

출연기관	관리기관	수행기관
화성산업주식회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협력재단")	경상북도 (도직접 수행)

❍ 사용용도 : 농업인 자녀교육, 복지증진, 지역개발, 공동협력 사업 등

※ **우리도 사용계획 : 고령농업인 농산물 우선 구매 ⇢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지원**

시간계획(안)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30~10:50	20′	티타임	
10:50~10:53	3′	개회, 내빈소개	사회자(농업정책과장)
10:53~11:00	7′	협약서 내용 보고	
11:00~11:10	10′	**인사말씀** (도지사, 이인중 명예회장, 김순철 사무총장)	
11:10~11:15	5′	**협약서 서명**	
11:15~11:20	5′	기념촬영	
11:20~		오찬 및 마침	

주요 참석자

<table>
<tr><td rowspan="3">화성
산업
㈜</td><td rowspan="3"></td><td>회장</td><td colspan="2">이인중(74세, 대구)</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이종원(47세)</td><td>사장</td></tr>
<tr><td>주요경력</td><td colspan="4">• 1958년 화성산업(주) 설립~
• 1976년 지역 최조 주택사업 시행
• 1991년 대구지하철 1호선 착공
• 19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준공</td></tr>
<tr><td></td><td>업체현황</td><td colspan="4">• (주요사업) 토목, 건축, 주택, 조경, 신재생에너지
• (매출액) 4,752억원 (종업원) 331명</td></tr>
<tr><td rowspan="5">대
중소
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td><td rowspan="2"></td><td>성
명</td><td colspan="3">김순철(60세, 전북 순창)</td></tr>
<tr><td>현
직</td><td colspan="3">사무총장
('19.2월취임, 3년임기)</td></tr>
<tr><td colspan="2">주요경력</td><td colspan="3">• 1987년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2001년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1983년 행정고시 27회
• 2012년 제 15대 중소기업청 차장
• 2018년 제 7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td></tr>
<tr><td rowspan="2"></td><td>성
명</td><td colspan="3">박노섭(61세, 충남 대전)</td></tr>
<tr><td>현
직</td><td colspan="3">운영본부장</td></tr>
<tr><td colspan="2">주요경력</td><td colspan="3">• 198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근무
• 2010년 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근무</td></tr>
</table>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

■ 설 립 일 : 2005년 설립(`04. 12월 설립근거 마련)
■ 설립목적 :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인력·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모델 발굴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정거래 관계 조성 지원
■ 주요사업 : 상생협력 사업, 기술생산지원 사업, 농어촌 상생기금 지원 등
■ 조성기금(`17~`19) : 107개기관, 770억원(조성목표 10년간 1조원 → 지원 164개사업 466억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
공 동 추 진 업 무 협 약 서

경상북도, 화성산업(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약기관」)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기관 간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사항】

협약기관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기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한다.

1. 경상북도
   가. 상생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 추진 및 총괄관리
   나. 상생기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등

2. 화성산업 주식회사
   가. 상생기금의 출연
   나. 지속적인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한 신사업 발굴 협력지원 등

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가. 상생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의 집행 관리
   나. 사업 사후관리 등

제3조【협약 이행】

협약기관은 본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제4조【비밀 유지】

각 협약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석】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기간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에 서명하고,
각 협약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2월 23일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화성산업(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경 상 북 도	화성산업 주식회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도 지 사	명 예 회 장	사 무 총 장
이 철 우	이 인 중	김 순 철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조성배경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후 피해 발생 및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들과 농어촌·농어업인들 간의 상생협력 촉진 사업 체계적 지원

추진현황

❍ ('12~'15) 한·칠레 FTA이후, 무역이득공유제도입 주장 등장 및 공감대형성

❍ ('16) 국회 주도 3개 법률개정안 의원입법발의 및 통과

❍ ('17)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발족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금조성('17~19.12) : 770억원(107개기관)

❍ 조성목표 : 10년간 1조원(매년1천억원) → 164개사업 466억원 사용

* 출연기업 혜택 : 총출연금 10% 법인세 공제, 지출금액 과세특례 등

운영절차 및 사업영역

출연협약체결 상생기금 출연 → 사업계획서작성 지원사업 신청 → 심의조정위원회 지원대상 심의 → 사업수행,결과 보고, 사후관리

* 추진방법 : 사업비를 위탁기관 현금통장 입금방식이 아닌 사업비 사용요청시 지급(상생포인터 선사용, 사후정산)

❍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 장학사업

❍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정주여건 개선 및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공동협력사업

❍ 상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을 위한 경비 등

기대효과

❍ 농어촌의 성장·발전 지원 및 기업의 사회공헌 도약

❍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공유가치 창출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3(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중소벤처기업노동과		
		작성자	과 장	이 근 식	
			팀 장	정필란	주무관 우병성
		연 락 처	054-880-2674		

경북도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 에스엠아이 종합대상

- 2019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시상... 도내 9개 우수 중소기업 시상 -

경상북도는 23일 대구경북상생본부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9개를 선정, ‘2019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경북도는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으로 추천된 중소기업에 대해 서류심사·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와 재무건실도, 산업재해율, 공정거래위반, 국세·지방세체납, 환경법위반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지난 4일 열린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9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9개 기업 중 종합대상은 ㈜에스엠아이(대표 김병찬, 칠곡군)가 차지했다.

또한 ▲경영혁신부문 대상 ㈜대구정밀(대표 허준행, 칠곡군) ▲기술개발부문 대상 ㈜불스(대표 남영조, 성주군) ▲고용창출부문 대상 ㈜크리셈(대표 권일수, 구미시) ▲여성기업부문 대상 정우하이텍(주)(대표 정혜순, 영천시) 등 4개 기업이 부문별 대상을 받았다.

이외 우수상은 ▲㈜프로템(대표 황중국, 구미시) ▲㈜이코니(대표 양병재, 구미시) ▲안동제비원전통식품(주)(대표 최명희, 안동시)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 청도군)가 수상했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에스엠아이는 유전용 기계부품을 제조하여 미국 등에 대부분 수출하고 있으며 기술중심의 고성장 기업으로 특히,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최대 3억원→5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시 우대, 해외시장개척, 기술연수, 기타 박람회 등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우선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유예된다.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업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한 중소기업에게 경상북도와 매일신문사가 공동 시상하는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이다.

199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1997년부터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27회째이다.

그간 도내 270여개의 우수한 기업들이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기업들은 경북형 강소기업을 넘어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수상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영혁신, 기술개발로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고 당부하면서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 체감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 경상북도 중소기업大賞 시상식 개최계획

◈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오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표창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행사 개요

○ (일 시) 2019. 12. 23(월) 14:00

○ (장 소) 道 대구경북상생본부 회의실

○ (참석인원) 총 50명 정도

* **도지사**, **매일신문사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

*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9개 업체) 대표 및 축하객 등

○ (훈 격) 경상북도지사·매일신문사 사장 공동

경상북도 중소기업大賞

▷ (시 행) 1993년 제1회 대상 시상, '97년부터 매일신문사와 공동주최
▷ (수상 현황) 270개사('18년까지 누계)
▷ (혜 택) 운전자금 우대(5억원) 지원, 보증평가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우선 지원 등

시간 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 ~ 14:05	'5	▶ 개식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4:05 ~ 14:15	'10	▶ 수상기업 소개	
14:15 ~ 14:25	'10	▶ 중소기업대상 시상(9개 업체)	**도지사** 매일신문사장
14:25 ~ 14:35	'10	▶ 인사말씀	**도지사** 매일신문사장
14:35 ~ 14:40	'5	▶ 단체 기념촬영	
14:40 ~		▶ 폐 식	

붙임 1

2019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현황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주요제품	소재지
종합대상		(주)에스엠아이	김병찬	유전용 기계부품	칠곡
부문 대상	경영혁신	㈜대구정밀	허준행	스프링	칠곡
	기술개발	㈜불스	남영조	농업용 기계	성주
	고용창출	㈜크리셈	권일수	RFID 태그, MEMS 센서	구미
	여성기업	정우하이텍(주)	정혜순	자동차부품	영천
우수상		㈜프로템	황중국	컨버팅 기계	구미
		㈜이코니	양병재	LCD 및 OLED 슬림에칭	구미
		안동제비원전통식품	최명희	된장, 고추장 등	안동
		㈜순수코리아	양칠식	물티슈	청도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3(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박승권	주무관 최은정
		연 락 처	054-880-3802		

경북도, 동절기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 내년 2월까지 37개 응급의료기관 한랭질환자 모니터링 -
- 한파대비 건강수칙 준수 당부 -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군 보건소 및 응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내원하는 한랭질환자 발생현황 신고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내 25개 보건소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37개소가 참여하며,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자 발생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한랭질환 예방 홍보 등 각종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 한랭질환자 발생현황, 한파대비 건강수칙, 한랭질환 감시체계 신고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한파에 대한 주의 환기와 예방수칙을 유도해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한다.

지난 18-19절기(‘18.12.1~’ 19.2.28.) 집계된 전국 한랭질환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44%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질환이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77%)가 가장 많았고,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 사이(40%) 한랭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기간동안 신고 된 환자는 전국 404명, 경북 41명이였으며, 사망자는 전국 10명, 경북 1명이었다.

경북도는 이러한 한랭질환은 간단한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길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은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에 신경 써 줄 것”을 주의하는 한편, “한랭질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 받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참고1 한파대비 Q&A

한파특보는?

(출처 : 기상청)

발령 기준: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랭질환이란?

○ 한랭질환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분류	주요특징	질병코드
저체온증	•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C 이하일 때로 우리 몸이 열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열을 만드는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는데 열 손실은 물과 바람 부는 환경에서 증가하므로 눈, 비, 바람, 물에 젖은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또한 두뇌에 영향을 끼쳐 명확한 의사 결정 및 움직임에 악영향을 끼치고 약물이나 음주를 하였을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온몸, 특히 팔다리의 심한 떨림 증상이 발생하고 34° C 미만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며 말이 어눌해지다가 지속되면 점점 의식이 흐려지며 결국 의식을 잃게 됩니다.	T68
동상	• 추위에 신체 부위가 얼게 되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에 걸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 도 있는 겨울철 대표 질환입니다	T33 T34 T35

참호병 침수병	• (참호병) 발을 물(10℃ 이하 냉수)에 오래 담그고 있을 때 발생 • (침수병) 차갑고 습한 공기에 오래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예: 축축하고 차가운 신발을 오래 신고 있을 때)	T69.0
동창	• 영상의 온도인 가벼운 추위에서 혈관 손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동상처럼 피부가 얼지는 않지만 손상부위에 세균 침범 시 심한 경우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69.1
기타	• 저하된 온도의 기타 명시된 영향 • 저하된 온도의 상세불명의 영향	T69.8 T69.9

한파대비 건강수칙은?

실내에서는	실외에서는
ㅇ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ㅇ **실내환경** :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어르신과 어린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ㅇ **무리한 운동은 삼갑시다.** ㅇ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합니다.** *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참고2 **한파대비와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 자료 내려받기: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우리 모두를 위한 건강한 습관

한파대비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03 저체온증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정 의

-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심부체온(core temperature)이란 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
  - – 체온이 35℃ 미만으로 내려가면 심장, 폐, 뇌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 저체온증의 단계

* 심부체온의 정도에 따라 저체온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계	경증	중등도	중증	
심부체온	35℃ ~ 32℃	32℃ ~ 28℃	28℃ 미만	25℃ 미만
징후 및 증상	몸 떨림	떨림/근경직	몸이 굳음	외형상 사망
심폐기능	빈맥	서맥 호흡저하	혈압/호흡 저하 부정맥	심폐정지
의식상태	지각장애	의식소실(혼미)	혼수	혼수

11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은 무엇인가요?

한랭질환은 기본적인 건강수칙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실외에서는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겨울철 실내 온도기준 ※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 기능이 낮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무리한 운동은 삼갑시다. •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합니다. ※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 합니다.

※ '체감온도'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위 정도를 나타낸 지수

– (확인방법) 기상청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 →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 → 지수별 → 생활기상지수 → 체감온도

15 일반적으로 한랭질환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노인

-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신체를 떠는 등으로 체온을 올리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나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 반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 * 노인의 경우 자율신경계의 이상 또는 혈관의 방어기전이 저하되어 혈관수축에 의해서 열 손실을 감소시키거나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 노인은 동절기 이른 아침에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할 경우에는 혈압 상승이나 심뇌혈관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아

- 체표면적(신체 표면의 면적)이 크고 피하 지방이 적어서 체온의 유지가 어렵고 몸을 떨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 * 소아는 추위에 노출 시 상대적으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 행동에 제약이 있어 저체온증에 이를 위험이 높습니다.

만성질환자

- 만성질환은 한파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동상이나 저체온증의 위험 인자로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한파 기간에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3(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		
		작 성 자	과 장	김 상 희	
			팀 장	차순애	주무관 김인걸
		연 락 처	054-880-2613		

사회적경제비서관과 함께 하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현장 간담회

-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사업 모색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경북도는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20일 청년괴짜방 안동점에서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세환 안동시 부시장,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50명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대상을 받은 승곡체험마을(대표 조원희)과 스타사회적기업을 수상한 ㈜제월아트체험센터(대표 서하나)의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발표 시간을 가진 후, 현장에서 겪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판로확보와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커피킹덤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고용현장을 둘러보고, 장애인 마을 프로젝트로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신세동 벽화마을'을 방문하여 벽화마을에서 활동 중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인 다누림협동조합 정윤정 대표와 간담회도 가졌다.

경상북도는 ‘함께 나누는 경제, 함께 누리는 경북’을 목표로 ‘행복 경북, 따뜻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7대 전략, 30개 주요과제를 수립해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제조, 농어업,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을 각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북 지역의 특성상 활용이 취약한 제도 등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민·관 위원이 함께 모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북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따뜻한 경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공유,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3(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작 성 자	과 장	황 영 호	
			팀 장	김걸동	주무관 김대원
		연 락 처	054-880-3142		

경북도 경주시,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 역사문화도시 경주, 신라천년의 새로운 출발! 동아시아의 미래를 담다! -

- 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발표!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에 열린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주관)'에서 경주시가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도시 1곳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상호 간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따라 선정됐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기준은 도시역량, 사업추진계획, 지역문화 발전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으로, 서류심사, 피피티(PPT)발표, 최종 심사위원회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경주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선정된 도시와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문화프로그램을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가진다.

그동안 '동아시아문화도시'로 ▲2014년에는 한국 광주,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2015년에는 한국 청주,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 ▲2016년에는 한국 제주도, 중국 닝보, 일본 나라 ▲2017년에는 한국 대구, 중국 창사, 일본 교토 ▲2018년에는 한국 부산, 중국 하얼빈, 일본 가나자와 ▲2019년에는 한국 인천,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도시마구 ▲2020년에는 한국 순천, 일본 기타규슈, 중국 양저우가 선정된 바 있다.

경주시는 1979년 유네스코가 일찍이 세계 10대 유적지의 하나로 지정했을 만큼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뚜렷한 도시 정체성과 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우수한 숙박과 도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을 인정받아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주시는 앞으로 경주의 역사자원에서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신을 추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홈커밍데이 ▲한·중·일 예술가 레지던시 ▲동아시아청소년문화예술제 등 동아시아문화도시 사무국을 설치해 개·폐막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21 동아시아문화도시'는 내년(2020년) 일본 기타규슈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중국, 일본의 선정 도시와 함께 3개 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주시가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과거 서라벌 도시문화의 다양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거점문화도시로서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경상북도의 대외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바람 행복 경북!

문 화 산 업 과
2019.12.23.(월)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선정 결과보고

❖ 한중일 3국 간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 정신 실천 합의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12.5월)에 따른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선정 결과 보고**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9. 10. 1.(화) ~ 11. 29.(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 **발표일자** : **2019. 12. 20.(금)**

○ **선정기준** : 국가 간 문화교류 실적, 중장기 문화기본계획 및 지역 문화발전 계획, 관련 프로그램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PPT발표 → 최종심사 (3단계 심사)

선정결과

○ **선정도시** : 경주시 **※ 한·중·일 각 국별 1개 도시**

○ **사업기간** : 2021. 1 ~12월(1년간)

○ **사업내용** : **개·폐막식 문화행사, 3개국 간 공동 및 문화교류 사업** 등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현황

- '14년 : 광주(한국), **요코하마(일본)**, 취안저우(중국)
- '15년 : 청주(한국), 니가타(일본), **칭다오(중국)**
- '16년 : **제주(한국)**, 나라(일본), 닝보(중국)
- '17년 : 대구(한국), **교토(일본)**, 창사(중국)
- '18년 : 부산(한국), 가나자와(일본), **하얼빈(중국)**
- '19년 : **인천(한국)**, 도쿄 도시마구(일본), 시안(중국)
- '20년 : 순천(한국), **기타규슈(일본)**, 양저우(중국)

※ 진한글씨체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장소

향후계획

○ 사업추진위원회(TFT) 운영, 추진 **사무국 설치 및 인력·재원 확보**

○ 사업 전, 사업기간, 종료 후 **시기별 대내외 홍보·환류 계획 마련**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3(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		
		작 성 자	과 장	김 상 희	
			팀 장	이명자	주무관 강성희
		연 락 처	054-880-2618		

경북도, 2019 하반기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금년 64개기업 최다 지정... 상반기 29, 하반기 35 -
- 지정서 수여식과 재정지원사업 설명회 실시 -

경상북도는 23일 오후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9 하반기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재정지원사업 설명회를 함께 실시했다.

하반기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기업을 공모한 결과 총 85개 기업이 신청하여 시군과 고용노동관서, 중간지원기관 3개 기관이 현지실사하고 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35개 업체가 선정됐다.

금년에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상반기 29개, 하반기 35개로 총 64개 최다 선정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참여가 많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일정 조직형태를 갖추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업체로 사업내용과 기업의 견실성 등에 대한 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정된 기업들은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문화·예술,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애견사업, 수목치료, 토종민물고기 중묘사업, 식판세척 소독 서비스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 텀블러 세척 배달서비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등 이채로운 사업내용을 내세운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지정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18개로 51%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창의·혁신형(10개), 지역사회공헌형(7개)이 이었다. 특히, 대표자 연령층을 보면 40대이하 청년층이 11개(31%), 40~50대가 21개(60%)이며 여성대표가 21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3년이며,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번 지정서 수여식에서 신규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기업인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내 사회적기업은 '19년 11월 기준 전체 282개이며 인증 150개, 예비 132개로 매년 50개이상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어 내년도 '202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국내외 판로 마케팅 전략, 사회적경제 세계화, 소셜벤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행복경북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는 경북형 사회적경제를 토대로 일자리창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 판로를 위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 협력 구축, 업종간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따뜻한 경제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 지정기간 : 2019년 12월 20일 ~ 2022년 12월 19일(3년간)

연번	시군	지정번호	지정단체(기업)	대표자	조직형태	유형	비고
1	영천	2019-30	영천생약 영농조합법인	현유진	영농·영어조합 법인	지역사회공헌형(가형)	
2	영천	2019-31	주식회사 아트코	안진영	주식회사	창의·혁신형(기타)	
3	영천	2019-32	주식회사 도그휴	박현숙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4	김천	2019-33	농업회사법인 가온 주식회사	박지우	농업·어업회사 법인	지역사회공헌형(가형)	
5	김천	2019-34	주식회사 비스퀴	이하나	주식회사	지역사회공헌형(가형)	
6	김천	2019-35	㈜뉴파워크리닝	남정대	주식회사	일자리 제공형	
7	구미	2019-36	㈜한국교육문화 지원센터	장영선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8	구미	2019-37	㈜리텀	정원찬	주식회사	창의·혁신형(기타)	
9	구미	2019-38	농업회사법인 착한영광 버섯마을 주식회사	손광식	농업·어업회사 법인	지역사회공헌형(가형)	
10	구미	2019-39	주식회사 트리케어	이주원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11	구미	2019-40	주식회사 빅토리아앤	최성희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12	칠곡	2019-41	우든협동조합	차현주	협동조합	창의·혁신형(기타)	
13	성주	2019-42	㈜오그래농업회사법인	장종현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14	성주	2019-43	송죽글러브㈜	정선희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15	고령	2019-44	㈜은빛세상	윤성희	주식회사	지역사회공헌형(가형)	
16	울진	2019-45	울진관상어협동조합	전정은	협동조합	창의·혁신형(기타)	
17	포항	2019-46	㈜디에스엠알오	진대용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18	포항	2019-47	농업회사법인 ㈜음식서당	유정희	농업회사법인	일자리제공형	
19	포항	2019-48	주식회사 식판대장	이선중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20	포항	2019-49	주식회사 유어스쿨	문예찬	주식회사	창의·혁신형(기타)	
21	포항	2019-50	㈜갓해물	김수희	주식회사	창의·혁신형(기타)	

연번	시군	지정번호	지정단체(기업)	대표자	조직형태	유형	비고
22	영덕	2019-51	주식회사 다사랑	원경세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23	영덕	2019-52	(유)욤재오	이승욱	유한회사	창의·혁신형(기타)	
24	경주	2019-53	㈜우리일렉콤	유현경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25	경주	2019-54	㈜사이시옷	김경민	주식회사	창의·혁신형(기타)	
26	경주	2019-55	창의융합과학㈜	이효선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27	안동	2019-56	주식회사 잇다	유경원	주식회사	창의·혁신형(기타)	
28	안동	2019-57	주식회사 편안동	김대현	주식회사	지역사회공헌형(가형)	
29	안동	2019-58	나무와열매협동조합	김경숙	협동조합	일자리제공형	
30	영주	2019-59	㈜은탑	황정자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31	영주	2019-60	㈜메디칼크리닝센터	권영한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32	영주	2019-61	㈜인잇	박필화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33	영주	2019-62	㈜예성	강점숙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34	문경	2019-63	주식회사 달콤한오늘	우태이	주식회사	창의·혁신형(기타)	
35	예천	2019-64	서민프레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김유진	농업·어업회사 법인	지역사회공헌형(가형)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3(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 성 자	과 장	김 준 호	
			팀 장	도영호	주무관 정성길
		연 락 처	054-880-3918		

2019년 제1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구미 지산동 지적재조사사업지 용도지역 불부합지 변경’ 및 ‘영주 경북전문대 학교부지 일부 축소’ 2건 원안가결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2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2건)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결과 : ①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원안, ②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 *경북전문대) → 원안

먼저,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구미 지산동 일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역 내 새로이 조사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용도지역 불부합지에 대하여 경계 변경을 통한 지역 민원 해소 및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됐다.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은 최근 경북전문대의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학과 폐지에 따라 교내 유휴시설부지에 대하여 새로운 학과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관 등 6개소 학교시설 부지를 축소(△26,427㎡)하는 것으로 위원회 상정·심의 결과 최종 ‘원안가결’ 됐다. 향후, 부지매각 등을 통한 학교 재무건전성 강화와 연구개발 확대 등으로 학생유치 및 학사운영·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학교 부지 축소는 도내 열악한 대학교 재무건전성 확보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추진 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도내 지적불부합지 정정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역민원 해소와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2. 23(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성 근	
			팀 장	장미정	주무관 한미애
		연 락 처	054-880-2756		

경북도, 고졸청년 취업활성화 지원을 통한 고졸성공사회 구현

- 경북형 고졸취업활성화 모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 고졸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패키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

경상북도는 23일 오후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관계부서를 비롯하여 도 교육청, 직업계고, 기업협의체,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등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정착 모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금년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교육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응하여 지방차원의 경북형 고졸취업활성화 정책(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도내 고졸취업 현황 및 문제점, 설문조사 등 실태 조사와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고등학교 역량개발 및 취업 후 학습지원(學), 취업단계에서 고졸청년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JOB), 주거, 결혼 등 안정적인 지역정착(兒)까지 생애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경로와 협력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졸취업활성화협의회 운영 ▲고등학교 단계의 취업준비 프로그램 지원 ▲고졸 유휴청년 상담 및 사회화 지원 ▲군입대자에 대한 복귀 및 장기근속 지원 ▲고졸자 후학습 지원 ▲주거, 결혼 등 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고졸청년의 문화생활 지원 등이 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발전을

위해 고졸청년 취업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제시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사업현실화 방안 및 상호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금년도에 추진한 직업계고 학생들과 고졸청년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교육, 학사학위 취득, 전문기술 교육, 농업계고 영농정착 컨설팅 등 역량개발과 일자리 인식개선 지원과 신규로 고졸청년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등 8개 정책을 마련했으며, 내년에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고졸청년의 사회적 자립,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은 “고졸취업 활성화는 과잉학력과 입시과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저출산 문제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취직연령 상승, 고학력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과 대졸자 실업률 상승이라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많은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 지방소멸 시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인 만큼 고졸청년의 취업, 주거, 후학습, 결혼 등 패키지로 지원하는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인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 경북형 고졸취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정착 모델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도내 고졸청년의 취업, 후학습, 주거, 결혼, 자녀출생까지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고졸청년의 취업활성화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2. 23.(월) 14:00

○ 장　　소 : 동락관 세미나실

○ 참　　석 : 65명 정도

- 도 : 일자리청년정책관 등 7명
- 수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명
- 유관기관 : 교육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도 교육청·취업지원센터, 경북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직업계고 취업담당교사,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등 55명

○ 주요내용

- 고졸취업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의견수렴
- 기타 유관기관 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

【경북형 고졸취업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정착 모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9. 7. 12. ~ 2020. 1. 7. (6개월)
- 용역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용역목적 : 고졸 청년의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정착·유입을 도모하고, 사교육 중소기업 구인난, 저출생 등 각종 사회문제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3	3′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3 ~ 14:08	5′	○ 인사말씀	일자리청년정책관
14:08 ~ 14:40	32′	○ 추진경과 및 최종보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14:40 ~ 15:40	60′	○ 토론(질의 응답)	
15:40 ~ 15:45	5′	○ 마무리 및 폐회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4일(화) 오전 7시 20분 도청 다목적홀에서 신상훈 ㈜톡킹스피치 대표를 초청해 「긍정적 사고와 유쾌한 소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한다.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4일(화) 오전 9시 도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 **이철우 도지사, ‘제16전투비행단 장병’ 위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4일(화) 오후 2시 예천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로한다.

□ **이철우 도지사, ‘2019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대상’ 시상**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4일(화) 오후 3시 도청 접견실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시상한다.

□ **이철우 도지사, ‘2019 경북환경상’ 시상**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2. 24일(화) 오후 5시 도청 회의실에서 환경시책 추진 우수시군을 시상한다.